

# 암치료제 처방받아 중고사이트에 되팔기도

## 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 〈중〉 보험사기 온상 요양병원

보험사기가 진화하면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과거 일부 한방 병원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던 보험사기 범죄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편승해 노인 요양병원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25일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31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입원 의료비 비중은 절반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 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을 살펴

고령화 편승 늘어난 요양병원...진료조작·입원일 부풀리기 기승  
광주 노인 입원일수 전국 두번째 많아...사무장병원 개설 악용도

보면 65세 이상 노인 1명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입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도별 분석 결과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보였다

인구 고령화와 요양입원 환자의 증가세를 틈타 광주·전남에선 보험사기의 주 무대가 기존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요양병원 설립 건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충청·호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요양병원의 신규 등록건수는 2014년 41곳, 2015년 49곳, 2016년 55곳, 2017년 61곳, 2018년 65곳으로 증가했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2104년 62곳, 2015년 68곳, 2016년 73곳, 2017년 81곳, 2018년 87곳에 달한다.

요양병원의 증가는 업계간 과다경쟁은

물론 보험사기를 종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적발된 1273개 사무장 병원을 분석한 결과, 병원 종별 중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개설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업계에선 그동안 광주·전남의 많은 한방병원이 검찰·경찰에 의해 집중 단속과 감시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개설기준이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요양병원으로 보험사기의 무대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의 적은 인력만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다. 일반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마다 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40명마다 1명 수준이다. 간호인력도 각각 입원환자 2.5명·6명당 한명이 기준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요양병원내 불법과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

사와 간호조무사가 고주파 온열암치료제를 하고, 실제 치료를 하지 않거나 횡수를 부풀리고 하루 치료시간을 초과해 보험금을 높이는 사례도 많았다. 또 인가받지 않은 병상을 운영하고 월 처방하는 주사제를 날마다 처방 한 것처럼 허위진료처를 작성한 경우도 다수였다.

보험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암 요양병원의 경우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처방받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중고사이트에 되파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의 입원을 앞두고 페이백(입원비 명목으로 지불한 돈의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을 요구하는 사례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충남·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다, 보험사기까지 더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은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법적·제도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3 | 달뜨기 02:57  
해질 18:25 | 달질 17:04

### 일교차 큰 가을날씨

동해상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16/28	보성	구름 많음	15/25
목포	구름 많음	18/26	순천	구름 많음	17/28
여수	구름 많음	19/25	영광	구름 많음	16/26
나주	구름 많음	15/28	진도	구름 많음	16/26
완도	구름 많음	18/25	전주	구름 많음	17/28
구례	구름 많음	15/28	군산	구름 많음	17/26
강진	구름 많음	16/26	남원	구름 많음	15/27
해남	구름 많음	15/26	축산도	구름 많음	17/22
장성	구름 많음	15/27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좋음: 미세먼지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28	11:55
여수	17:31	--:--
	01:05	07:08
	13:05	19:38

### ◇ 주간 날씨

27(금)	28(토)	29(일)	30(월)	10/1(화)	2(수)	3(목)
19/26	19/26	19/27	18/27	17/27	17/27	17/27

## 네이버, 광주 초등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네이버가 광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네이버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에서 광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네이버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놀자'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 지역의 행사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

광주를 안내하는 로봇을 코딩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3~4학년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신청을 접수 받는다. 교육은 오는 10월 20일과 26일, 11월 2일 각각 2일 일정으로 두차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playsw.or.kr)에서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무등산 불법행위 매년 100건...전국 8번째

무등산국립공원에서 매해 100건가량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등산에서 단속한 불법·무질서 행위는 498건이다. 매년 100건쯤으로 새길 출입이나 취사, 야영, 흡연, 쓰레기 투기 등 불법·무질서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해당 기간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단속 현황으로는 무등산이 8번째로 많다. 연도별로는 2015년 89건, 2016년 104건, 2017년 130건, 2018년 72건, 올해 8월까지 103건이다. 단풍철을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더 많은 위반 사례가 단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국립공원은 함께 지켜야 하는 국가자산"이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코이카 '평화 & SDG 세계시민 축제'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람·평화·번영·환경 테마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오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9 평화 & SDG 세계시민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같은 날 개막하는 '제9회 국제인권도시포럼'(9월 30일~10월 3일) 연계 행사다. 코이카는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다.

'Stand Together for One World!'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NGO, 시민단체, 학교, 기업 등 단체 및 기관이 함께 한다. 특히 광주지역 NGO 및 네트워크 등 광주 시민사회 등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제개발협력과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개발목표)의 중요성, 의미에 대한 광주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마련된다.

SDG 17개 목표와 ▲People(사람) ▲Peace(평화) ▲Prosperity(번영)

▲Planet(환경)을 의미하는 4가지 테마로 다양한 전시·체험·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SDG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17가지 목표다.

이번 행사에는 ▲전시 ▲세계시민 ▲인권·평화 ▲정년참여의 4개 존(Zone)에서 다양한 체험교육과 홍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버스킹 공연을 비롯한 문화공연과 광주시민 및 행사 참여 국내외 인사들이 함께 하는 희망 사전제 퍼레이드도 진행된다.

송승엽 코이카 이사를 비롯한 코이카 관계자와 이용섭 광주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정진성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폐기학식 UN인권최고대표 특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도 포럼 당일 행사를 찾는다.

한편, 코이카는 내달 3일까지 열리는 제9회 국제인권도시포럼에서 '2030 인권도시 의제 워크숍'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1991년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가을철 산악사고 인명구조 훈련 25일 무등산 중봉에서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산악구조대원들이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산악구조대는 등반 중 추락해 흉부골절을 당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상황을 가정해 구조대 현장출동, 드론을 활용한 위치 파악, 현장 응급처치와 소방헬기를 이용한 후송 훈련을 진행했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